

올해 중기 정책자금 5조4000만원 융자지원

중기부,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3조원 지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5일 한국판 뉴딜 등에 3조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장기·저리로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선 중기부는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분야에 3조원(전체 57%)을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전체 정책자금의 57%를 투입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 등 한

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원의 총액목표제를 설정하고 융자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4,800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으로 2조2500억원, 성장기업에 신성장기반·투융자복합금융자금 1조9,100억원, 수출기업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 사업전환 및 재도약 기업 재도약지원자금 2,500억원과 유동성 위기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일시적 경영으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중욱 청장은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많이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1년 정책자금은 지난 12월 말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으며, 자금상담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회원가입 후 상담을 원하는 일시를 선택한 후 해당 일자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담당 직원과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호남지방통계청은 5일 매년 대강당에서 개최해오던 시무식 행사를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호석 호남청장의 신년사를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 행사를 대체했다.

“지역정책에 필요한 통계 확대 개발”

호남통계청, 온라인 시무식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5일 매년 대강당에서 개최해오던 시무식 행사를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부서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호석 호남청장의 신년사를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 행사를 대체했다.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비대면 조사방식의 확대를 통해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정책에 필요한 정확하고 다양한 지역통계를 확대 개발·개선에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에 신설된 통계데이터 광주센터와 통계체험센터를 활용해 지역민들이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무식 후, 이호석 청장은 부서장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주열사를 추모했다.

/김윤상 기자

적십자사 전북지사 신임 김영섭 사무처장 취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지난 1월 1일자로 김영섭 씨가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였고, 1990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혈액관리본부 기획관리국장, 헌혈증진국장, 본사 교육원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늘어나면서 적십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우선 전라북도민들이 적십자 후원참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도민들의 정기후원 참여에 응답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손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이춘성 신임 순창농어촌공사 지사장 취임



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서기수)는 2021년 1월 1일자로 이춘성 지사장이 순창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아 취임했다.

이춘성 순창지사장은 1990년 입사하여, 군산지사장, 남원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21년 1월 1일자로 순창지사장에 부임했다.

이춘성 지사장은 코로나 19로 더욱 어렵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전 직원의 소망과 화합을 기본으로 순창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등 지사를 만들어나겠다고 취임사를 했으며, “순창군민 발전을 위해서 순창군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원형 기자

여성 사무소장 9명으로 전진 배치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여성 첫 지부장·단장 발령도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지난 1월 4일자로 2021년 정기인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진영을 구축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2020년 취임 이후 여성인력들의 뛰어난 업무능력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해 2021년 정기인사 시 여성 사무소장을 기존 3명에서 9명으로 대폭 전진 배치했다.

또한 지부장, 영업본부 단장 등 전 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이었던 주요보직에도 최초로 여성 우수인력을 등용하는 등 여성리더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여성 최초 지부장인 진안군지부 정미경 지부장과 최초 여성 단장인 이마경 단장을 비롯해 급차 새로 보임한 여성 지점장들에게 축하사신을 보내면서 “요즘

처럼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에는 여성 리더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나게 일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16년 첫 번째 여성지점장을 배출한 이후 매년 여성지점장 보임을 늘려가고 있으며, 2021년 1월 현재 총 52개 영업점에 23명의 여성 지점(부)장 등 여성 리더들을 배치해 운용 중에 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받는다 이유는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수 ↑”

이용호 의원 “올해 39만4000명에서 매년 늘어 2030년에는 74만명 예상… 현 연계감액제도 국민적 공감 얻고 지속될 수 있겠지 고민해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수급자 수가 2021년 39만 4,000명에서 매년 늘어 2030년에는 74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관련 현황 및 재정소요 추계’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연계감액수급자’ 수는 2021년 39만4,000명, 2023년 45만8,000명, 2025년 53만5,000명, 2027년 61만9,000명, 2030년 74만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평균 3만8,400명씩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해 삭감 없이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2021년 4,119억원, 2023년 4,899억원, 2025년 5,856억원, 2027년 6,973억원, 2030년 7,95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으로는 6,030억원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추가재정 추계는 기초연금 삭감액만을 고려한 것으로, 두 연금 간 복잡한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함께 감안하면 정부가 매년 절감하는 재정규모는 6천억 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소득 하위 70% 서민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빼앗긴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연계 감액수급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기여금 때문에 복지혜택이 줄어들다는 역설을 알고 있는 지금의 연계감액 제도가 앞으로 얼마나 국민적 공감을 얻고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하우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전북 ‘참예우’, 13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전국 최초 ‘8년 연속 명품인증’ 수상도 받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한우공역브랜드인 ‘참예우’가 소비자민도인 우수축산물인증위원회가 최 결과, 13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004년 이후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전국 지자체 추천을 통해 국내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 제도로서 전문평가단이 품질, 위생, 안전성, 브랜드 관리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최종 선정하며, 인증 기간은 1년이다.

또한 ‘참예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대한민국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8년 연속 명품인증을 수상했다.

‘참예우’는 지난 2010~2012년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2013~2020년 8년 연속 ‘국가명품인증’을 수상했다.

권용화 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 선정은 회원이 5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신장자격부터 생산에서 가공, 유통 단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만큼 ‘참예우’ 브랜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브랜드경진대회에서 8년

연속 명품인증 수상은 도내 11개 시·군과 6개 협회의 1100여명의 축산농가와 축협조합들을 비롯한 임직원, 전라북도 및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모든 관계자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강병무 의장을 비롯한 지역축협 조합장들은 “참예우가 13년 연속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선정된 것과 8년 연속 명품인증을 수상한 것은 참예우 축산농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든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명품 참예우 브랜드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예우 참여 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지도·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겨울철 맥류 병해충 미리 살펴야”

농진청, 보리위축병 등 예방·방제 요령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최근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맥류의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이를 매개로 하는 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병해충 발생을 미리 살피고 제때 방제해줄 것을 5일 당부했다.

맥류가 겨울나기(월동) 한 직후에 발생해 큰 피해를 주는 병으로 보리위축병과 잎집눈무늬병이 있다. 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거나 겨울나기 중 수시로 관찰하고, 발병 시에는 등록된 약제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 방제해야 한다.

보리위축병(맥류황화회색병, BYDV; Barley Yellow Dwarf Virus)은 겨울나기 한 진딧물에 의해 감염된다. 잎 끝이

황색에서 붉은색, 보라색으로 변하고 키가 자라지 않으며 식물체가 주저앉아 버린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의 원인이 되는 진딧물을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특히 겨울나기 뒤 기온이 따뜻해지면 작물의 잎 뒷면에 주의 깊게 살피고 진딧물이 발견되면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 등의 약제를 7일 간격으로 뿌려 방제한다.

잎집눈무늬병(Sharp eyespot)은 겨울나기 후 주로 백백하게 심긴(밀식재배) 맥류에 나타난다. 줄기 아래쪽에 타원형의 갈색 병징이 나타나고 위쪽으로 번지며 죽는데, 특히 3월 상순에 9도(°C) 이하의 이상저온일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지난

해 병이 발생한 재배지나 산성 사양토(모래땅)에서의 재배는 피하도록 한다. 또한 작물을 지나치게 빽빽하게 심지 말며 잡초 방제를 철저히 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한다.

한편, 작물별 등록된 제초제 및 살균제, 살충제에 대한 정보와 잠정등록 작물보호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약정보시스템’(http://p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밀, 보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밀, 보리가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 겨울철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맥류는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구를 정비해야 하고, 가을철 씨 뿌리는 시기를 늦춰 맥류가 너무 웃자라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지역 어르신 위한 난로 기부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지난 연말연시 지역 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및 지역 어르신을 위한 난로를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및 물품 지원은 지역에서 기부한 백미를 활용해 덕유산에서 활동 중인 원추리 봉사단이 떡국 떡 및 가래떡을 제작하여 관매한 금액으로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금과 지역 어르신의 겨울나기를 위한 난로를 지원했다.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곤충사육일지

전북농기원, 곤충사육 가이드북 발간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전북지역에서 사육되는 곤충에 대한 사육기술과 전북 곤충사육 농가 홍보를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전북도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는 곤충은 229종 중 104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는 흰장박이꽃무지와 장수풍뎠이, 귀뚜라미, 갈색거저리 등 10여 종의 곤충이 사육되고 있다.

최근 곤충사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시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인 ‘꽃박이(흰장박이꽃무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한 책이다.

이와는 별도로 곤충사육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곤충사육일지를 새롭게 발간했다. 그동안 표준화된 사육일지가 없어 농가에서 체계적인 사육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새롭게 발간된 곤충사육일지는 그날그날 사육실 관리, 작업내용, 특이사항뿐만 아니라 거대 내역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뒷부분에는 농가별로 손쉽게 소득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경영분석표를 추가했다.

발간된 책자는 전북도곤충산업연구회(농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익산=정영환 기자